

“교회의 목표를 위해 적극 헌신하며 성도생활에 본이 되겠습니다” ‘권사 임직예배’ 성대하고 은혜롭게 드려져... 817명 권사 취임



본교회 권사 임직예배가 지난 12월 17일(토) 오전 안양성전과, 폭설이 내린 서해안 지역의 서산·아산·천안 성전 등 7개 성전에서 동시에 성대하고 은혜롭게 드려져 여성집사 788명이 권사로, 29명이 명예권사로 임직되었다.

이 덕과 성도의 기쁨을 위해, 기록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도록 부름 받은 귀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변함없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은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직임을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다짐하였다.

이날 예배는 오전 10시 이석호 목사님의 사회로 시작되어 유훈 장로님의 기도, 남성 솔리스트와 호산나 성가대의 합창 찬양, 당회장 조 목사님의 설교, 임직식 순서로 드려졌다.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인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기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 (하안동)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굴 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기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종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평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 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안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인중 : 평택시 인중읍 한촌길27번길 9-8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39-11(광동동) T.055-312-3731
- 울진 : 울진시 처인구 영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해토로48 (문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산동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정로102번길 56(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대명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북로 55(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명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영매읍 방학동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용신동) T.043-848-3731
- 진위(제2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정주시 산서면 산서로2(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신면 정계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1월 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인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다양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심혜정 -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가정에서 막내딸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께서 서울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에서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때에 종대로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저희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업하던 분이 아버지 몰래 많은 빚을 지고 도망가는 바람에 사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어렵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부모님은 안양으로 올리와 호계동에 전셋집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안정된 직업을 갖기 위해 애썼으나 그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낙심하고 불안해 하셨습니다. 그 때에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는 친구 분이 아버지를 전도하셨고, 또 아버지의 인도로 어머니도 우리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난생 처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이상하게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흘러나와 다른 성도님들 보기에 무척 민망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님의 신령한 위리가 임하였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것처럼 처음 교회에 간 날부터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예배와 전도에 힘쓰며 매일 오전 정한 시간에 한 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어머니를 교회로 이끄신 아버지는 몇 번 예배에 참석한 후 교회에 잘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처음 교회에 다녀온 그날부터 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어머니의 모습이 당시 어린 저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이사를 거듭하면서도, 작은 방 두 칸에서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살면서도, 어머니는 항상 감사하며 입술에 찬송이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채 한 평이 안 되는 좁은 부엌에서 정한 시간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께서 믿음이 굳어지고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자 다른 가족의 핏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붙잡으면서까지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찬송과 기도를 하며 교회의 예배와 구역에 배에 빠지지 않으시고 교회의 일에 앞장서서 참여하여 봉사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도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학교 부서의 성가대와 찬양단에서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노방전도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일이 너

무 좋아서 주일에는 거의 교회에서 생활하시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이 예쁜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봉사하면서 저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는 교회학교 교사로 학생들을 섬기면서 청년연합회에 소속하여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하느라 지치고 힘들어 낙심할 때가 많았지만 변함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 곧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인하여 다시 힘을 내고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 121:1-2) 힘에 부치고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도와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때에 아직 결혼 직령기가 되지 않은 청년연합회 부회장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적어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아르바이트하는 친구에게서 갑작스럽게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를 배우자감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녔지만 믿음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저는 그를 전도하여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둘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와의 약속 때문에 마지못해 교회에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무엇보다 남편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남편이 새벽마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더니, 어느 날부터 새벽에 신앙성경 로마서를 펼쳐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심일조도 온전히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딸이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어 번갈아 아이를 돌보느라 저희 부부가 함께 봉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남편은 혼자서 주일에 성가대 봉사를 하겠다고 고집하여 저를 무척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주일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크고 작은 많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있었지만 이러한 남편의 변화는 그런 저도 믿기 어려울 만큼 변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였습니다. 저에게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4살 때 교회에서 구역장 직분을 주셔서 직분 감당과 구역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미려하나마 직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구역 성도님들을 섬기며 구역장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구역 성도님들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므로 구역이 부흥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친정아버지께서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정하던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두 달 동안에 또 몸의 여러 곳에 안 좋

은 증상이 나타나서 퇴원하신 후에도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습니다. 그 2년 반 동안 언니와 함께 아버지 병구완을 하면서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이 많이 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면서 자주 감정이 우울해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때에 수시로 짜증을 내고 화를 내셨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이 심방을 오시면 아버지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매우 밝고 환한 미소로 맞이하시고 기도를 받으시고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한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퇴원하여 집에 계시는 동안 거동이 불편한 몸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완고한 오빠 때문에 우리 기독교 예식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담력과 용기로 오빠를 설득하며 강권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빠가 제 의견을 따라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면 매우 심하게 반대하던 오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그 일 또한 저에게는 무척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던 저희 가족에 일생일대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래 열심히 일했던 외국계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부서 이동을 한 후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운영하는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모두들 강하게 반대하며 만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고 더욱 힘들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사랑하시고 지켜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능히 감당할 만한 어려움만을 허락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 남편이 회사를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남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저희 부부는 그 어려움 또한 장래의 행동한 복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 주셔서 회사가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저는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무척 사랑해 주심을 느낍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여 특히 믿음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었고, 나이가 들어서는 에스더와 다니엘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하고자 믿음과 기도를 하였습다. 그리고 지금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생각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사무엘상 15:22) 하신 이 말씀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 적극 실천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진조가 뚜렷하게 현실로 나타나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주님 안에서 항상 깨어 있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써서 그 날에 기쁘게 주님을 뵈게 되기를 간절히 그리고 날마다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